

|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실 |

Weekly

vol. 181 2026. 5. 29

TGIF

Trend, Geopolitical, Indicators on Fridays

Week Ahead Economic Events and Schedule

Chart of the Week - Macro & Bond

Global Monitor - Macro & Bond & FX

경제/환율
최광혁
kh.choi@ls-sec.co.kr



채권
Analyst 우혜영
whydele@ls-sec.co.kr



해외채권/크레딧
Analyst 박지빈
jibin@ls-sec.co.kr



Weekly

TGIF

Trend, Geopolitical,
Indicators on Fridays

Vol. 181

한국 경기 성장 기대에도 고용 안정에는 시간이 필요

Contents

Point 1.	Macro Weekly	3
Point 2.	Chart of the week	4
Point 3	다음 주 금융시장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지표	5
Point 4	Global FX Monitor	6
Point 5	Global Macro Monitor	8
Point 6	Global Bond Monitor	10



Macro Weekly

Macro Comment

한국 경기 성장 기대에도 고용 안정에는 시간이 필요

- 한국 경제지표 중 경기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어려움을 주는 지표는 실업률. 좁은 의미의 실업률이라고 하지만 경기 급변 시기에도 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렵고 경기의 성장과 둔화와 관계없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판단. 최근의 쉬었음 인구 증가와 고령층 노동 증가 및 청년층의 실업률 급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업률이 한국의 경제를 설명하는 힘은 상당히 약하다는 판단
- 실업률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포함해 고용보조지표3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U6실업률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즉 불안정 실업과 파트타임 등을 고려한 실업률인데, 현재 8.3%를 기록하고 있어 공식 실업률인 2.8%와는 상당히 괴리된 상태. 미국의 U6실업률은 8.2%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소폭 높은 수준으로 판단. 미국은 실업률이 서서히 상승하는 구간이고 한국은 실업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26년의 한국 경기에 좀 더 점수를 줄 수는 있을 것. 다만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구조적인 문제들도 산재해 있어 금융정책 판단에도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 (6/1~4)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가 개최되며, Computex 2026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됨. 이번 행사에서는 Physical AI, 스케일링 인프라, Agentic AI 등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며, Computex 개막 1일 전인 6월 1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을 진행. 지난 3월 GTC 산호세에서 Vera Rubin 플랫폼, Groq 3 LPU 등이 최초 발표된 바 있음. 이번 GTC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발표한 제품들의 구체화 및 신제품 발표 여부, 아시아 반도체 생태계 변화 여부 등.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대만을 방문해 젠슨 황과 회동을 가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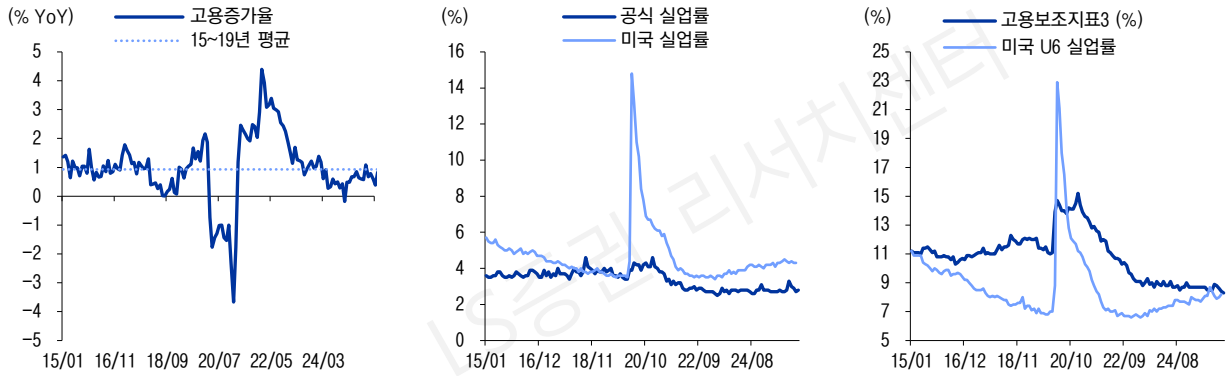
연준 베이지북 발표 (6/3)

베이지북은 지역 연은의 경제·물가·고용 보고서.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회의 전 미국의 경제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4월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관찰 구역 중 8개 지역에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소폭 또는 완만하게(slight to modest pace) 증가. 2개 지역은 변화가 없었고(little change), 나머지 2개 지역은 소폭 또는 완만한 감소(slight to modest declines)를 보고. 중동 분쟁은 고용, 가격 책정, 자본 투자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관망세를 보임.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slightly) 증가.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언급. 물가상승률은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다수 지역에서 보통의(moderate)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 지역은 완만한(modest) 상승



Chart of the Week

그림1 한국 고용증가율과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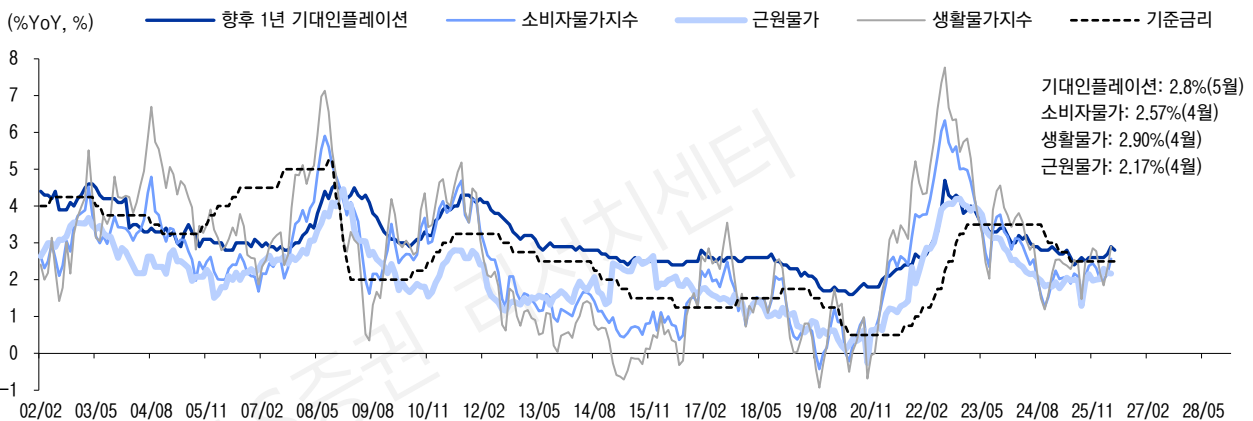


자료: KOSIS, LS 증권 리서치센터

Macro

- 한국 금통위를 거치면서 시장은 한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완전고용의 달성 여부(물론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목표이지만). 한국의 낮은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을 떠나서 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재료
- 다만 최근의 고용증가율 하락 추세가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은 상황. 여기에 더해 한국의 공식 실업률이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 미국 U6실업률과 유사한 고용보조지표3를 기준으로 한국 실업률은 개선된 수준 정도로 판단

그림2 헤드라인 상승률보다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 자극 → 추가 물가 상승 압력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Bond

- 5월 금통위에서 신현송 총재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공급측 뿐 아니라 수요측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여지가 높아진만큼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 총재는 4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지만 다른 지표를 보면 분명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생활물가상승률이 2.9%라면서,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로를 비추어 볼 때 현재 물가 추이는 상방 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
- 단, 7월 인상 결정에 앞서 확인 필요한 것은 지난 2개월간 상승률 둔화되었던 근원물가상승률이 5월 or 6월에 반등할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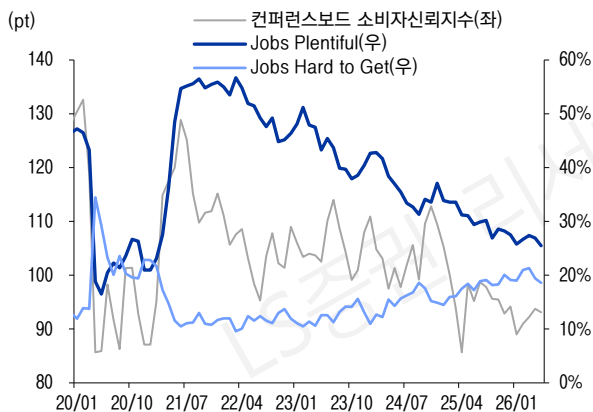
다음 주 금융시장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지표

표1 주요 경제지표

날짜	국가	지표	예상	발표	이전
05/26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92pt	93.1pt	92.8pt
05/26	미국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0pt	0.4pt	-2.3pt
05/27	미국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	4pt	13pt	3pt
05/28	한국	BOK Base Rate	2.5%	2.5%	2.5%
05/28	유럽	경기대지수	93pt	93.5pt	93pt
05/28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oM)	0.3%	0.2%	0.3%
05/28	미국	GDP 연간화 (QoQ)	2.0%	1.6%	2.0%
05/28	미국	신규주택매매	660k	662k	682k
05/29	한국	광공업생산 (YoY)	2.5%	--	3.6%
05/29	일본	실업률	2.7%	--	2.7%
05/29	일본	광공업생산 (MoM)	-0.6%	--	-0.4%
05/29	독일	CPI (YoY)	2.9%	--	2.9%
05/31	중국	제조업 PMI	50pt	--	50.3pt
06/01	한국	수출 (YoY)	50.7%	--	48.0%
06/01	중국	레이팅독 중국 제조업 PMI	51.3pt	--	52.2pt
06/01	유럽	S&P 글로벌 유로존 제조업 PMI	--	--	51.4pt
06/01	미국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	--	55.3pt
06/01	미국	ISM 제조업지수	53.2pt	--	52.7pt
06/02	한국	CPI (YoY)	3.0%	--	2.6%
06/02	미국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6,866k	--	6,866k
06/03	미국	ISM 서비스 지수	53.8pt	--	53.6pt
06/03	미국	내구재 주문	--	--	--
06/05	유럽	GDP SA (QoQ)	0.1%	--	0.1%
06/05	미국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95k	--	115k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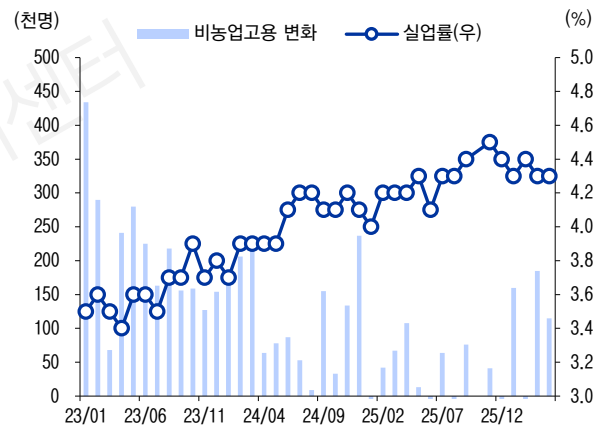


발표치: 93.1, 예상치: 92, 이전치: 93.8

-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3.1로 예상치 상회. 4월 수치는 92.8→93.8로 상향조정됨
- 실업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노동시장편차는 7.5→6.9로 전월대비 하락.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과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은 2개월 연속 소폭 하락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미국 고용보고서



예상치 95k, 이전치 115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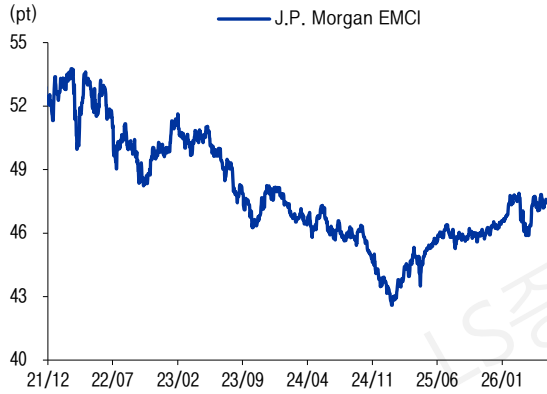
- 4월 비농업고용 변동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 실업률은 전월과 보합. 다만 정보(-1.3만), 금융(-1.1만) 등 고임금 직군 고용은 하락세를 지속했고, 정부는 7개월 연속 (-)
-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은 0.16%MoM로 예상치(0.3%)를 하회했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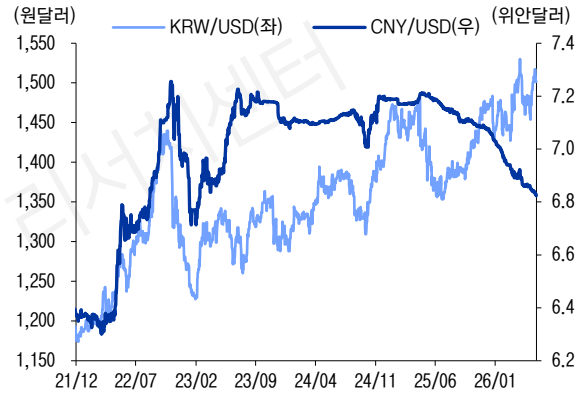
Global FX Monitor

그림9 J.P. Morgan EM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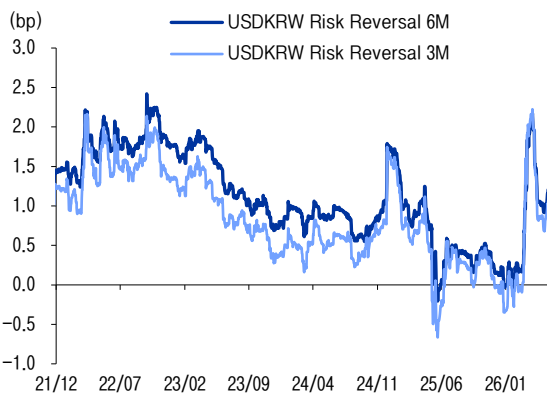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원달러/위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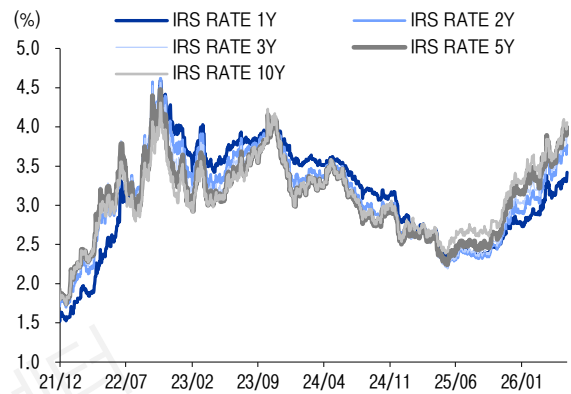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USDKRW Risk Reversal 6M/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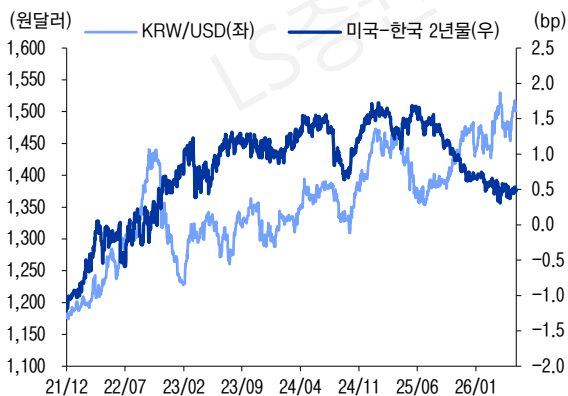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IRS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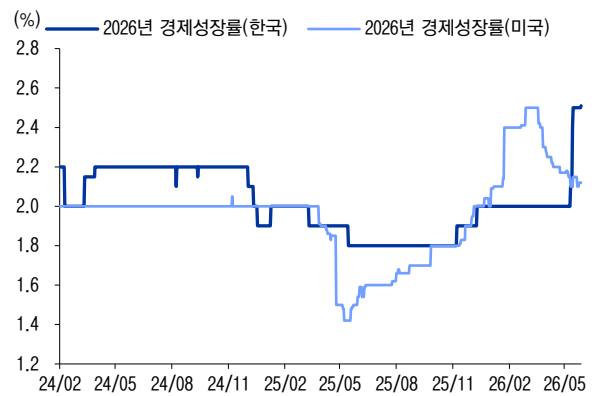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한미 금리차/원달러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한국/미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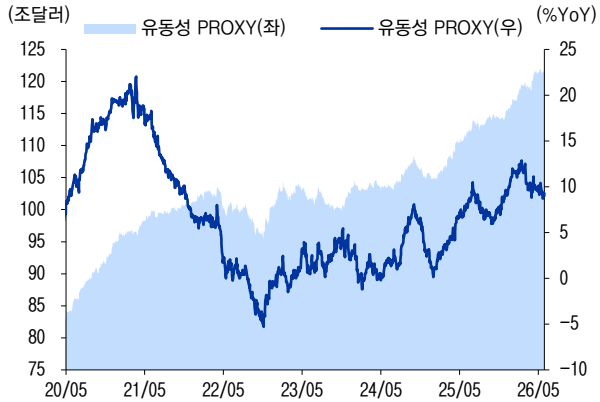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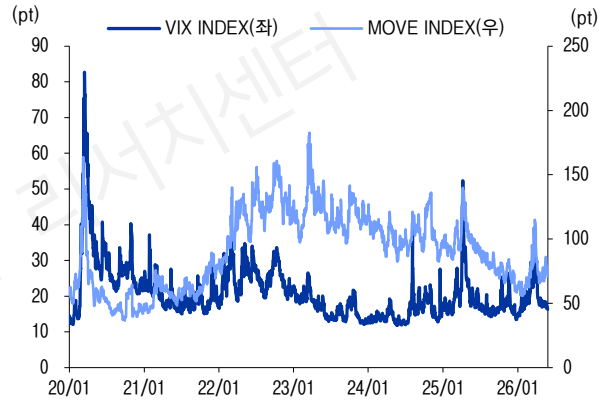
Global Macro Monitor

그림15 유동성 지수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변동성 지수(VIX, MOV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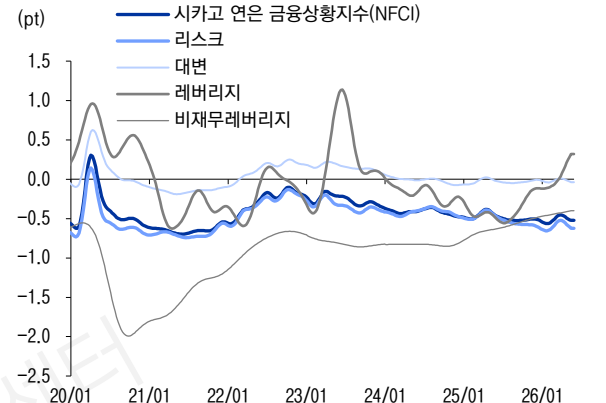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MBA 주택용자신청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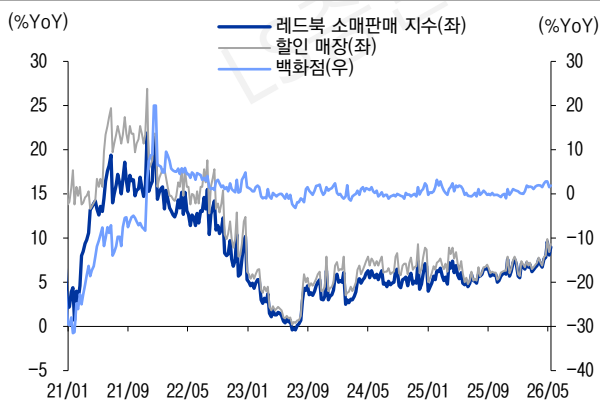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금융상황지수(NFCI)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Fed Watch 금리 인하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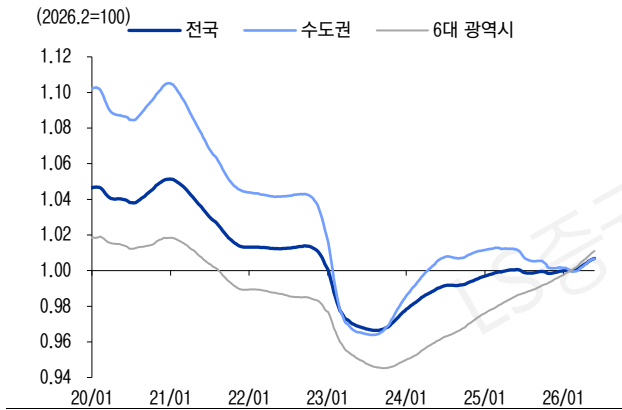
MEETING DATE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450-475	475-500
2026-06-17	0.0%	0.0%	99.1%	0.9%	0.0%	0.0%	0.0%	0.0%
2026-07-29	0.0%	0.0%	90.6%	9.3%	0.1%	0.0%	0.0%	0.0%
2026-09-16	0.0%	0.0%	73.2%	24.9%	1.9%	0.0%	0.0%	0.0%
2026-10-28	0.0%	0.0%	66.8%	29.2%	3.9%	0.2%	0.0%	0.0%
2026-12-09	0.0%	0.0%	51.0%	38.1%	9.9%	1.1%	0.0%	0.0%
2027-01-27	0.0%	0.0%	45.7%	39.4%	12.8%	2.0%	0.1%	0.0%
2027-03-17	0.0%	0.0%	36.8%	40.6%	18.0%	4.1%	0.5%	0.0%
2027-04-28	0.0%	0.0%	33.7%	40.3%	19.9%	5.3%	0.8%	0.1%
2027-06-09	0.0%	0.0%	33.3%	40.2%	20.1%	5.4%	0.9%	0.1%
2027-07-28	0.0%	0.0%	33.3%	40.2%	20.1%	5.4%	0.9%	0.1%
2027-09-15	0.0%	4.0%	34.2%	37.8%	18.3%	4.9%	0.8%	0.1%
2027-10-27	0.3%	6.1%	34.4%	36.5%	17.4%	4.6%	0.7%	0.1%
2027-12-08	0.2%	3.6%	22.2%	35.6%	25.6%	10.1%	2.4%	0.3%

자료: CME Group,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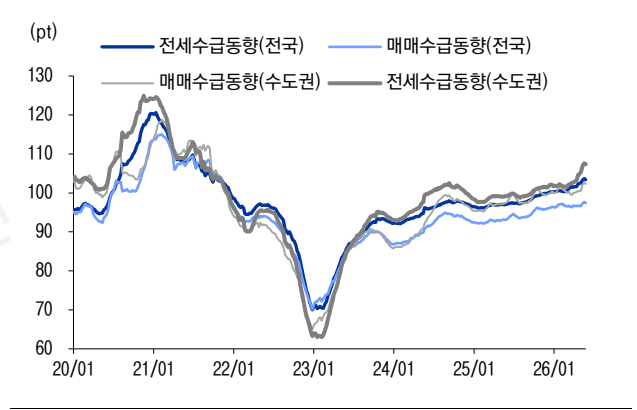
Global Macro Monitor - 한국 부동산

그림21 아파트 전세/매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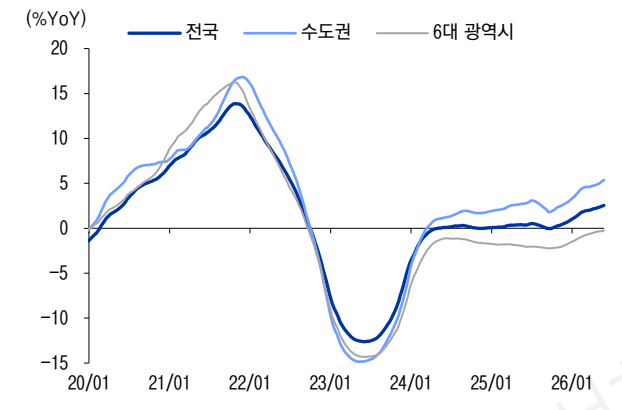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아파트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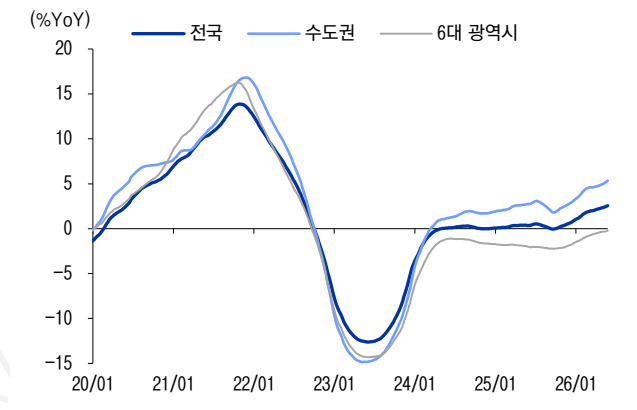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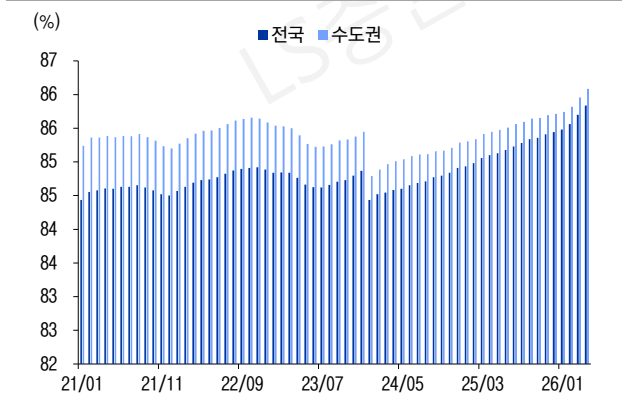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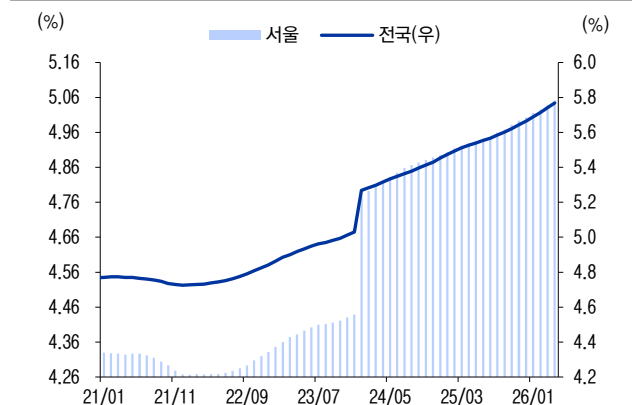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월간 오피스텔 전세/매매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월간 오피스텔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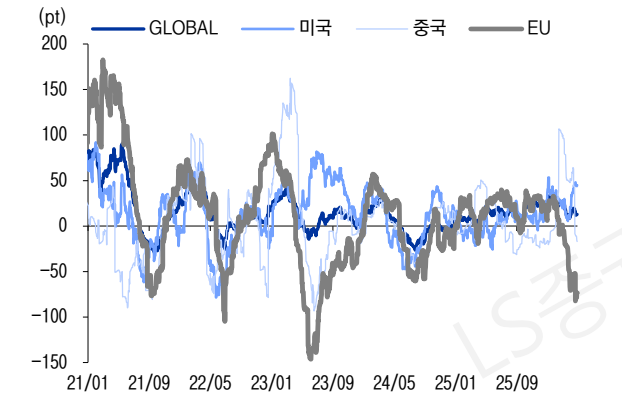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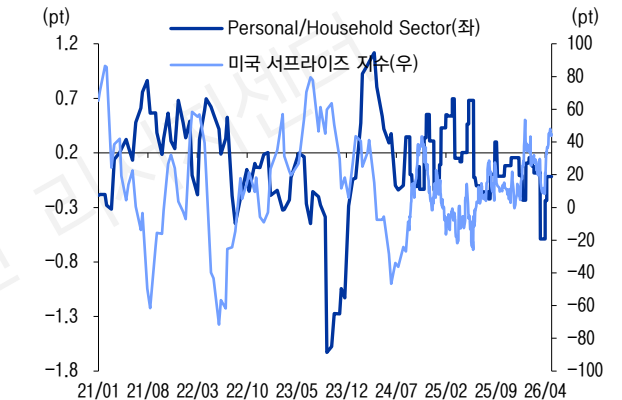
Global Macro Monitor - 서프라이즈 지수

그림27 글로벌 서프라이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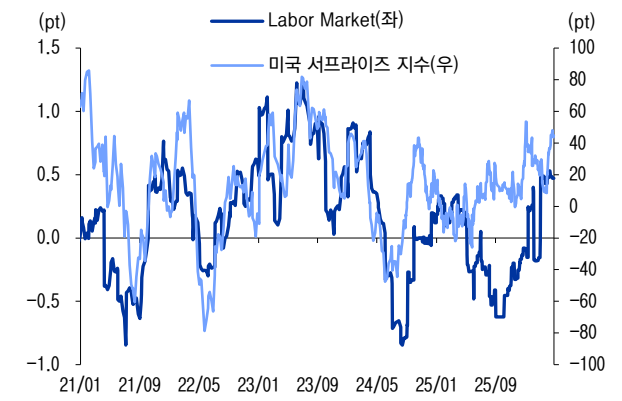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Personal/Househ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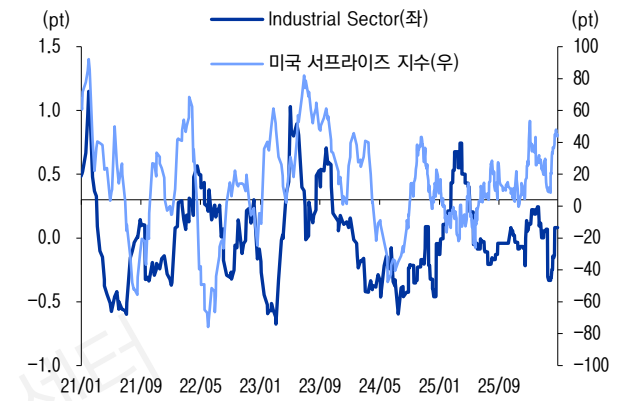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Labor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Indus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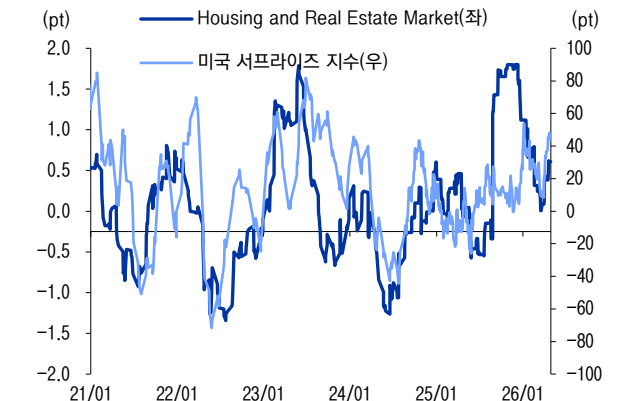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Retail&Wholesal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Housing and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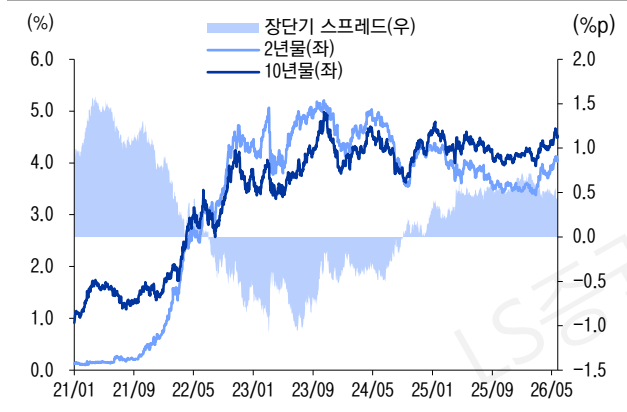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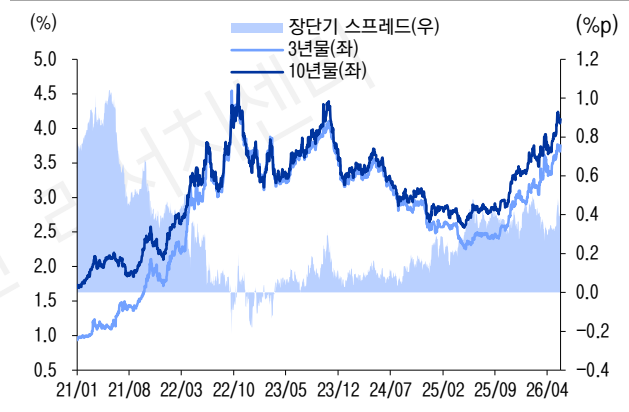
Global Bond Monitor –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그림33 미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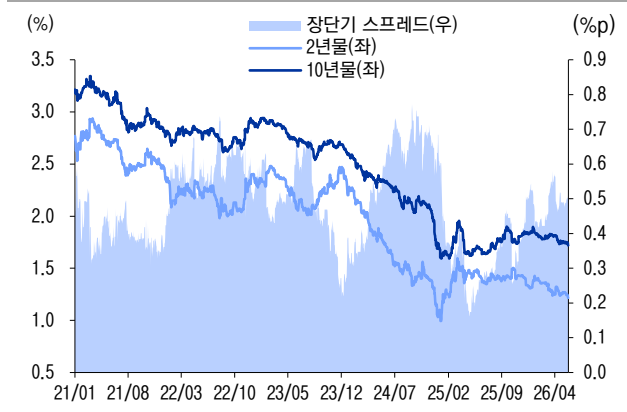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한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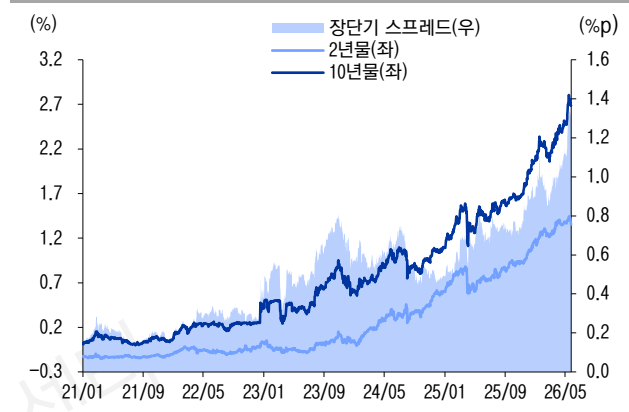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중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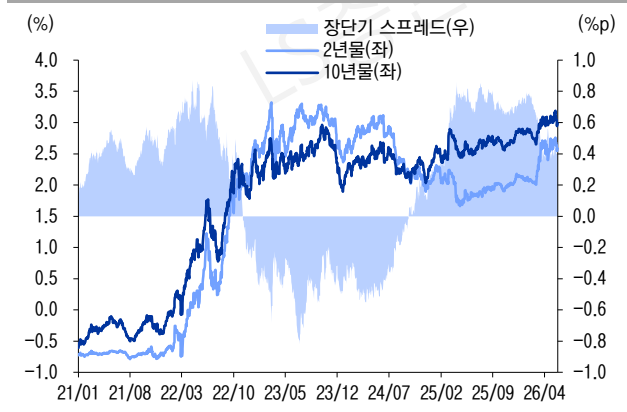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일본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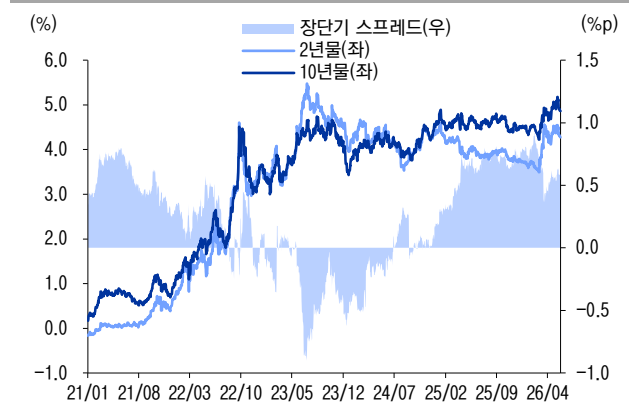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독일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영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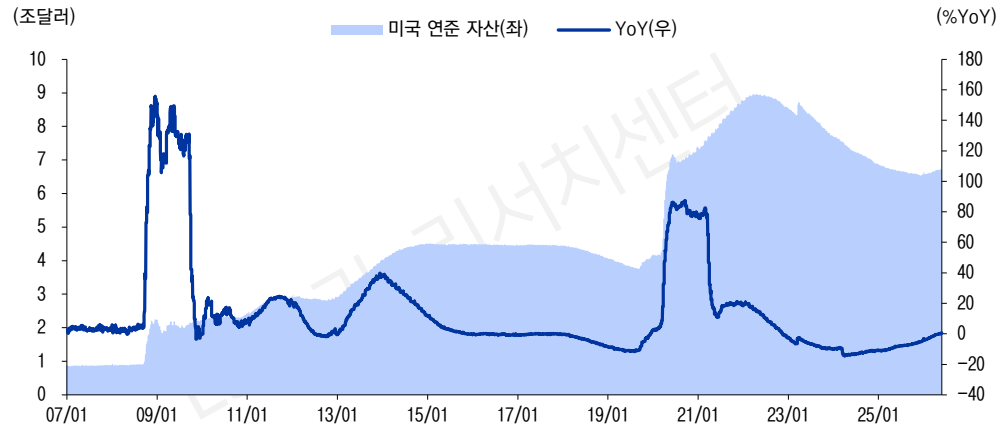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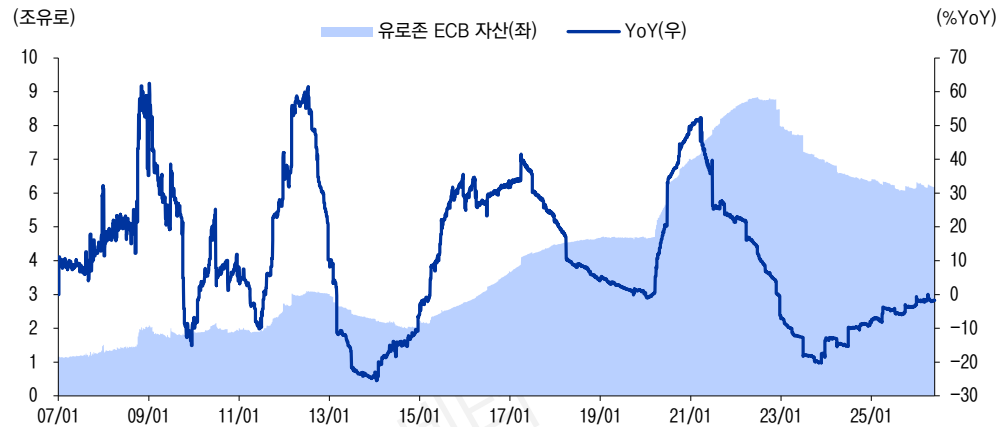
Global Bond Monitor -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그림39 미국 연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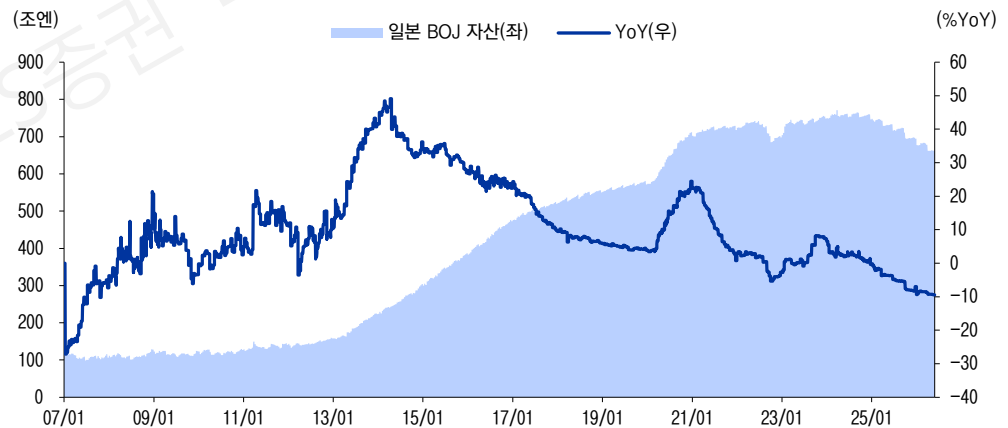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유로존 ECB 자산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일본 BOJ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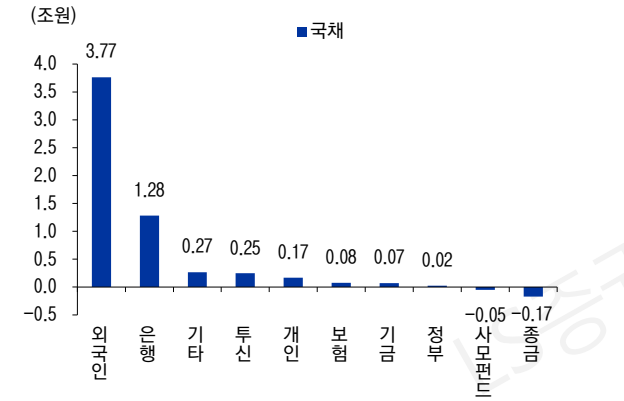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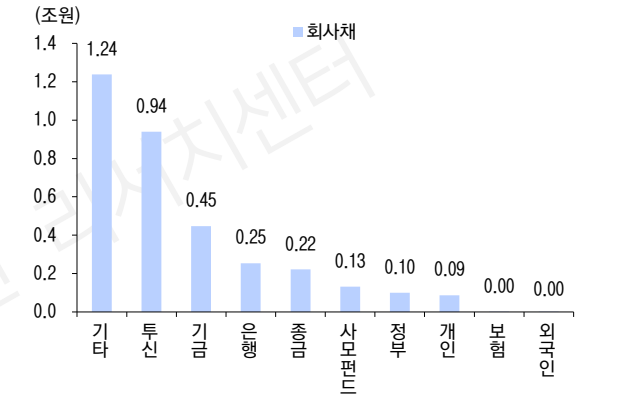
Global Bond Monitor – 한국 채권시장

그림42 국채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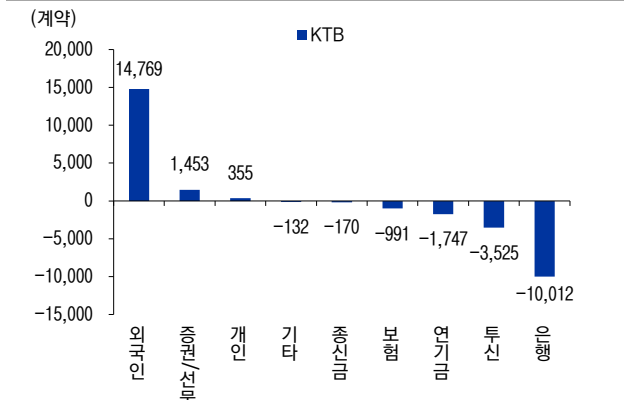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회사채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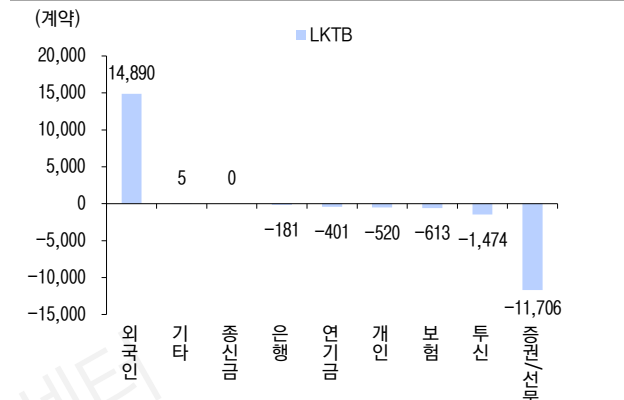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KTFB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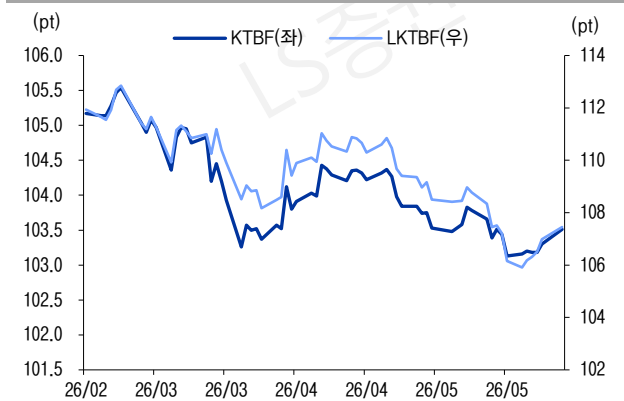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LKTFB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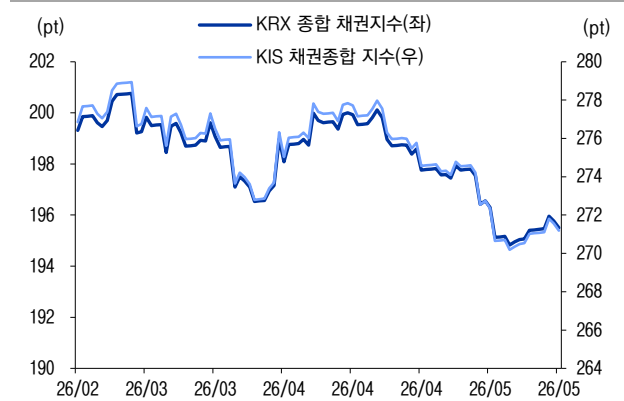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KTFB와 LKTFB 가격 추이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한국 채권시장 주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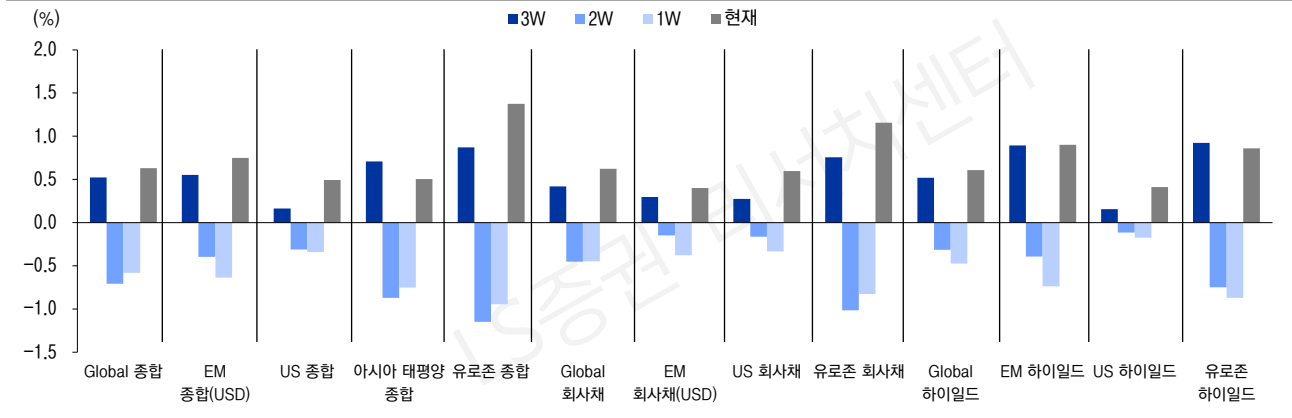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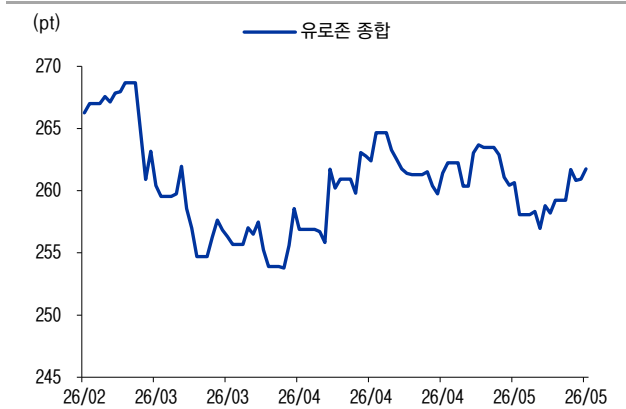
Global Bond Monitor – 글로벌 채권시장

그림48 Bloomberg Barclays 채권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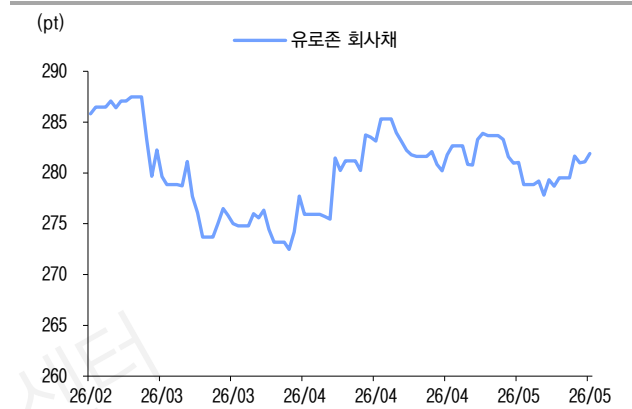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Bloomberg Barclays 유로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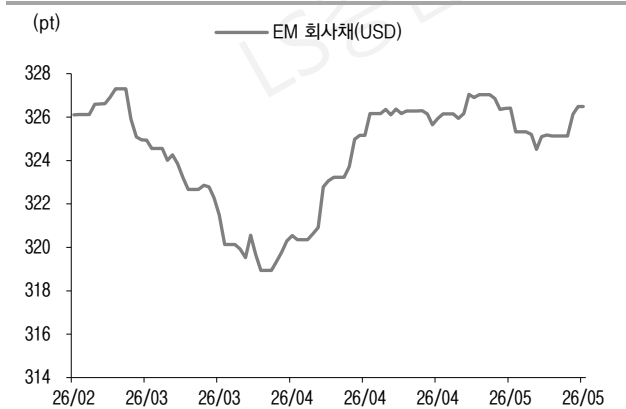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Bloomberg Barclays 유로존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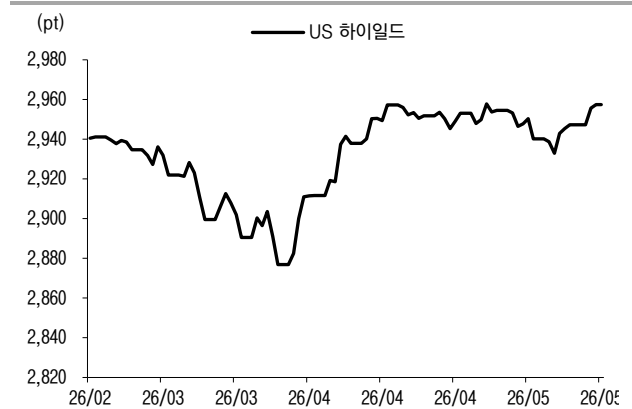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Bloomberg Barclays EM 회사채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Bloomberg Barclays US 하이일드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광혁, 우혜영,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